

양태불변화사 결합 장치에 대한 연구

김홍자(홍익대)

1. 머리말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문장에 두 가지 이상의 독어 양태불변화사 결합이 통사, 분포적 기준에 의거해서 수용될 수 없으며 그것이 의미론적 특성에 따라서도 결합될 수 없을 때, 의도 층위로 기술 될 수 있는데, 구어 텍스트에 나타난 양태불변화사 결합장치들의 상황을 보다 정확히 규정하고, 시간과 공간에 걸쳐 확장하고, 각 상호간의 관계를 기술함에 있어서 이미 어휘적 수단으로 수식된 발화기도 행위형이 어떻게 세분화되고 수식되느냐는 하는 역할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는 세 가지 문장서법에 따라 구분하되, 통사적 특징을 통해 드러나는 의사소통상호간에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는 불변화사 결합 가운데 공간적으로 서로 멀리 떨어진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열린 결합 offene Kombinationen이라고 규정하고 두 개 이상의 결합이 서로 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것을 닫힌 결합 geschlossene Kombinationen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여러 개의 양태불변화사가 결합할 때, 어떤 순서의 배열단위가 가장 적합한 양태단위를 출발점으로 얻어지는 의미 영역을 이루는지 시험해 보고자 한다. 이 다양한 텍스트 뉘앙스를 붙여넣는 유표성은 사태에 대한 생각, 시간에 대한 관계 그리고 타당성이다. 그 양태불변화사의 결합은 주제 개념과 관련하여 문장에 기술된 사태의 존재를 규정하고 문장의 사태가 주제 구간 내에 존재하는 것이며 사태의 타당성이 X의 조건하에 또는 X의 방식으로 대화를 진행하도록 유도한다. 이처럼 효율적인 정보전달을 주목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양태불변화사의 결합이 발화수반행위와 관련하여 명제의 불확실성, 필연성, 확실성에 대해서 화자가 불/확실 명제를 가지고 자신의 심적 태도를 어떻게 더 정확히 표현해 내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2. 열린 결합장치

양태불변화사 *denn*은 불변화사 *nicht*와 의문문에서 열린 결합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¹⁾

(1) Tim: Naja, ich mein, solange sie (die Kinder) immer wieder von selbst nachhause kommen, gehts doch noch.

Doris: Naja, bloß Mensch, also nee, ich weiß nich, die fangen son richtiges Landstreicherleben an!

Tim: Ja, erzählen die denn nicht hinterher, wo sie gewesen sind?

(2) Heinz: Ich hab hier ganz gute Verbindungen. ich fahr zum Bahnhof und vom Bahnhof mit dem Flugzeug. mit dem flughafenbus, der fährt/

Anna: Is das denn nich sehr lästig?

Heinz: Bitte?

Anna: Ist denn das nich lästig?

여기에서 이 두 양태불변화사들의 <비기대성> 자질과 <기대성> 자질이 결합된다. 그 결합은 처음에는 열린 결합장치를 이루다가 마지막에 Anna가 재질문을 통해 결속적 결합장치 즉 닫힌 결합장치를 유도한다. 양태불변화사 *denn*의 <비기대성> 자질은 질문에 대한 동기와 관련된 것이며, 양태불변화사 *nicht*의 <기대성> 자질은 질문의 내용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서로 결합될 수 있다. *denn nicht* 결합형식은 *nicht*로 인해 명료한 대답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표현되며 아울러 화자는 확인을 기대하고 있다.²⁾ 위의 예문(2)의 *denn nicht*결합을 통하여 Anna가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1) Vgl. Franck(1980:225) : Thurmair (1989:165).

2)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양태불변화사 *nicht*는 *denn*과 결합 될 수 있으나, *etwa*와는 결합될 수 없다.

Heinz가 이제까지와는 달리 이번 여행에는 공항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가려 한다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데에 있다. 그리고 Anna가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이러한 사실이 번거롭다는 것이다. 그래서 Anna는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ja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다. 여기서 양태불변화사 결합장치에서 '도대체'denn라는 표현을 강조함으로서 대명사가 결합장치의 중간에 배열하고 있다.

중역에서의 양태불변화사의 위치를 더 정확히 고찰해보면 특히 양태불변화사와 대명사³⁾ 관계에서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역에서 레마성분인 명사 요소가 일반적으로 양태불변화사 뒤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양태불변화사가 확정적인 사건 Bestimmtheit 과 연관되어 결코 비확정적인 문 구성 성분 뒤에 나타날 수 없다는 것도 암시하고 있다. 위의 예문(2)에서 양태불변화사 nich는 레마로서 최고의 전달가치를 가지는 요소이며 그 다음 일반적으로 테마에 해당하는 비강세 대명사를 양태불변화사 앞에 내세움으로서 (예외는 동사에 n이 붙는 경우)일어나는 장치변용들을 양태불변화사와 명사, 테마 - 레마 성분에 기대어 고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정동사가 문전역 첫째 자리에 위치할 경우에는 정동사에 인접해서 주어-목적어 어순을 지켜야 하는 대명사가 아니라면 양태불변화사의 열린 결합형태는 비교적 자유스럽다. 다음의 / /사이에 양태불변화사가 올 수 있다.

(3) Hat/ /Onkel Donald/ /seinen Neffen/ /das
Rieseneis spendiert?

위의 예문에서 / /속에 가령 denn, eigentlich, wohl등이 올 수 있다면. 이는 화자의 관심사가 질문에 나타난 진술 전반에 해당되는 열린 결합장치를 유도하고 있다.⁴⁾

3) 양태불변화사의 위치특성을 상세히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Hentschel(1986:46-53)의 대명사와 관련한 폭넓은 연구 활동참조.

4) Vgl. Hentschel(1986:215).

- (4) Das wundert mich aber, daß ich Sie hier treffe! Wie sind denn
SIE bloß hierhergekommen?

그러나 위의 예문처럼 평서문에서 대명사가 레마성분이 될 경우, 전달 역동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높은 전달가 rheme proper의 응화작용에 의하여 양태불변화사 사이에 나타난다.

- (5) Du brauchst nicht abzuspülen.

Das kann ja ICH machen / Das kann ICH ja machen.

- (6) Meiser : Ich kann nichts sehen. Gehen Sie doch aus dem
Weg!

Müller : Gehen SIE doch aus dem Weg! / Gehen doch SIE
aus dem Weg!

- (7) “Wer zum Teufel ist das?” und “Wer zum Teufel ist denn
DAS?” murmelte mir Henry Kissinger einige Male ins
Ohr.(SZ)⁵⁾

- (8) Ute : --- hab ich angefangen, ne DIN- Norm zu übersetzen und
da (---) /

Ina : Was is DAS denn ? (BA, 186)

적어도 (5)- (8)에서 처럼 Hentschel(1986:215)과 Borst(1985)에 의하면, 대명사는 레마 성분으로서 고도의 전달가를 매개체로 높은 등급이 매겨진

5) 이 글에서의 인용발화는 주로 다음의 신문과 작품에서 따온 것이며 괄호 안에 그 약자를 표기했다. “Süddeutsche Zeitung” (SZ)와 Brons-Albert(1984)의 “Gesprochenes Standarddeutsch. Telefondialoge”(BA), Bieler(1977)의 “Maria Morzeck oder das Kaninchen bin ich”(Bi), Engelmann(21979)의 “Eingang nur für Herrschaften”(En), Kempowski(21982)의 “Tadellöser & Wolff”(Ke), Kroetz(1977)의 “Chiengauer Geschichten”(Kr), Böll(1976)의 “Die verlorene Ehre der Katharina Blum”(Bö), Freiburger Korpus(FK), Mann(1977)의 “Der Untertan” (Ma).

다는 것은 양태불변화사가 언제나 레마앞에 온다는 주장과는 다르다.⁶⁾ 우리는 액센트가 있는 테마 대명사와 레마성분의 대명사절이 취하고 있는 위치에서 ‘정보적인 것’과 ‘알려진 것’이 상응하고, ‘비정보적인 것’과 ‘알려지지 않은’⁷⁾ 것이 상응한다는 차이점 외에도 테마 요소와 레마 요소의 차이점과 ‘눈에 띄는’ 내지 ‘눈에 띄지 않는’ 요소와 상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액센트가 있는 대명사들이 ‘잘 알려진’ 요소가 되는 것은 반드시 맥락에 따라 통합되기 때문이다. 역시 액센트 때문에 ‘눈에 띄는(두드러진)’ 요소가 되는 것은 다음의 위치의 상관성보고 알 수 있다.

+ bekannt / - auffällig	양태불변화사앞
+ bekannt / + auffällig	양태불변화사앞과 뒤
- bekannt / + auffällig	양태불변화사 뒤

이러한 분석은 3인칭 대명사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으로서 er/sie/es와 der/die/ das에서 출발한다. 대명사가 ‘알려진’ ‘눈에 띄는’ 요소에 해당된다면 er/sie/es와 der/die/das는 일상어에서는 der/die/das만이 거의 강조되어 나타나지만 er sie es는 액센트로 강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두 대명사들의 차이점은 위치에서도 두드러지는데, 대개 der/ die/das만 중역에서 양태불변화사의 중간에 위치한다. 8)

(9) Der Kommissar entdeckt bei der Besichtigung des atortes
einige Blütenblätter: Wie mögen denn die ur da hingekommen

6) 우리는 강조된 대명사를 물론 Thema라고 지칭한다면 위에 묘사된 위치 변이들은 양태불변화가가 레마성분 앞에 나타난다는 Hentschel(1986)이나 Borst(1985)의 주장과 상반되는 예다.

7) 이것은 ‘상황적으로 현존하는’ 혹은 ‘현존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도 있다.

8) Vgl. Thurmair(1989:290).

sein?

- (10) Also der Joachim!! Was hat sich denn der bloß dabei gedacht, als er sich für die Rallye beworben hat?

그러나 테마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 3인칭대명사가 양태불변화사들 사이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이 비문이 된다.

- (10a) Also der Joachim!! *Was hat sich denn er bloß dabei edacht, als er sich für die Rallye beworben hat?
aber: Was hat er sich denn bloß dabei gedacht...?

1,2인칭 대명사는 두 개의 양태불변화사가 나란히 위치할 경우에 1,2인칭 대명사는 ‘눈에 띄는 요소’로 다음과 같이 열린 결합장치를 유도한다.⁹⁾

- (11) Das wundert mich aber, daß ich Sie hier treffe! Wie sind denn SIE bloß hierhergekommen?
(12) Was hast denn DU schon geleistet?
(13) Mach doch DU mal deinen Mund zu?

이와 같이 모든 테마적인 요소가 이들 양태불변화사를 열린 결합장치로 유도하는 것은 아니다. Krivonosov(1965b:501)의 가설에 의하면 양태불변화사의 왼쪽에는 ‘주어진 것’ 즉 상황, 문맥에 의해 알려진 테마가 위치하고 오른쪽에는 ‘새로운 것’ 즉, 상황과 문맥에 의해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레마가 등장한다. 이는 앞 정보와의 연결로 인해서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게 되고 최상의 이해력을 추구하고자 함으로써 비롯된 것임으로 테마적 요소가 문두에 오게 되어 유표적 강조를 꾀하고자 한다. ‘나’와 ‘너’는 의심을 강화하여 또는 명령을 강화함으로써 상화, 문맥이 이 요소 ICH와 DU, SIE

9) Vgl. Thurmair(1989:292).

를 테마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제3자인 대명사를 나타내는 er/es/sie는 선택적 대조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열린 결합에서는 두 양태불변화사 사이에 테마적인 것이 위치하고 동시에 첫째의 양태불변화사 뒤에 등장한다. 레마는 일반적으로 Hentschel(1986:212ff)에 의하면 한 문장에서 마지막 양태불변화사의 뒤에 등장함으로써 양태불변화사는 테마와 레마의 울타리¹⁰⁾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사건의 연관관계를 표현하는데 독일어에 있어서는 부사와 양태불변화사가 중요한 표현 수단에 속한다. 어떤 한 문장에서 a 다음에 오는 요소 b를 위해 지시점으로 지시 테두리로서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은 문장이 어떤 연결어미와 연결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¹¹⁾

(14) Ja, äh also, da hab ich noch

(M1) (S1)

ein Problem, ähm tjä, also, es ist doch so, daß
werden.

(M2)

(S2)

양태불변화사(M1)→ 문장(S1)→ 양태불변화사(M2)→ 문장(S2)의 관계가 성립한다. M1은 화자가 아직 말을 하고 싶지 않고 잠시 생각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시점의 역할을 한다. 두 개의 담화 사이에 휴식기를 채워주는 양태불변화사 M2가 들어감으로서 의사소통 복원이 이루어진다. 이는 그 다음에 오는 문장을 위해 지시테두리로 작용하여 여기서 지시 보유관계(S1포함 S2)가 성립된다. M2는 화자가 교체될 때, 침묵이나 다른 화자의 방해로 인해 잠시 대화가 중단되더라도 다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마련해 준다. 양쪽 맥락을 연결해 주는 지시점은 지시이전temporale Verschiebung이라고 부른다.

10) 울타리 개념은 권영숙(1998:149). 참조.

11) 장기성, 김홍자(2000:107), 양태불변화사와 텍스트맥락. 참조.

(15) Hmmm tja, ja ja, so ist das halt,
(S, (M1))

also das ist wirklich eine schlimme Geschichte.

새로운 화자가 마지막 차례를 넘겨받아서 대화를 계속해 나갈 때까지 완충지대가 계속된다. 상황을 바꾸어서 화자가 막 시작한 문장구조를 빨리 얼버무려 끝냄으로서 중간 방해가 중복으로 잘못 암시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두 가지 중요한 점 즉 시간 고정과 시간 배열에서 테두리 시간은 일련의 부분사건들에 대해 일종의 ‘울타리’ 역할을 하는 시간이다. 이러한 행위는 담화 체계에서 대화 참가자들 공동의 관련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는 어떤 내용을 말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싶을 때 양태불변화사를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주제에 이르렀거나 혹은 대화를 끝내기 위한 전제로 사용되는 것을 다음의 특성을 지닌 시간 배정으로 확인할 수 있겠다.

첫째, 텍스트 발단 부분에서 서술하려는 전체사건의 시간과 공간이 설정되어야 하겠다.

둘째, 이러한 시간적, 공간적 배경 하에 전체심상에서 선발된 사건들이 텍스트 내에서 일어난 순서대로 서술된다.

셋째, 평가나, 보충설명 그리고 개인의견은 계속되는 부분사건들의 전 또는 후에 삽입된다.

따라서 양태불변화사는 이 발화 부분에 연결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기능을 두 가지로 하위 분류할 수 있는데, 후행연결과 전행연결이다. 후행연결 기능에서는 화자가 청자에 대해 이미 가정하고 있는 청자의 사전 지식, 사전 가정, 태도와 관계하고 있으며 상황자체를 나타내기도 한다. 전행연결 기능에서 양태불변화사는 청자의 앞으로 나타날 표현을 전제로 청자의 반응에 영향을 끼친다. 화자는 청자의 반응에 대한 기대를 분명히 하려고 한다면, 기대하는 반응에 대한 그의 입장을 미리 밝힐 수도 있다.

지시이전, t1:지시점 < t2

a. Mach doch mal deinen Mund zu! →

지시보유, t2:지시태두리 < t3

b. Mach doch Du mal deinen Mund zu!

위에서처럼 사태 a가 시간적으로 제한된 의미를 가지고 사태 a에 따라 사태 b가 결정되기 때문에 양태불변화사 사이에 2인칭 DU에 대한 테마적 사태라는 시간성상의 한 점에 고착시킴으로서 사태a는 지시점으로 작용하여 사태 b와 같은 지시태두리 내에서의 제2의 지시점을 가지게 된다. 제2의 지시점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보다 닫힌 결합 장치에서 열린 결합장치로 유도할 때 특정한 주제와의 연합에 의하여 의미관계를 갖는 언어Kollokation와 재연Reiteration의 논리적 결속을 따져야 한다.

(16) Wie haben denn die Sportler bloß diesen Streß überstanden?

(17) Könnte denn deine Schwester mir wohl helfen, die Arbeit zu tippen?

(18) Wir könnten eigentlich Peter und Martin am Sonntag zum Essen einladen. Ruf doch die Jungs mal an!

(19) Nina: Die Müllers müssen ganz schön reich sein.
Uwe: Stimmt: Cornelia hat ja von ihrem Vater auch zum Abitur ein neues Auto gekriegt.

(20) Hör doch endlich mal auf!

(21) Wer hat denn damals schon ein eigenes Auto fahren können? (Bó c.124)

논리적 결속은 어휘, 문법적 요소의 결속이 아니라 정보를 전체 텍스트의 주

제와 관련하여 결속하는 것으로서 양태불변화사의 위치와 등장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다시 다음의 도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offene’ Kombination

Verb

Peripherie - haben, sein, sich , machen

Modalverben

Modalpartikeln - denn, doch, ja

ein Teil des Themas - Pronomina der 1. und 2. Person,

- der/ die/ das

- thematische Lexeme

Modalpartikeln - bloß, wohl, etwa, mal, eigentlich,

schon, nich, auch

Kern / Zentrum / Rhema

결과적으로 독일어 틀구조의 P2 가 의미담당자로서 분리동사나 완료시제의 경우 적어도 의미의 반을 차지하고 있거나 P2가 보다 큰 전달가를 갖게된다. 마치 술어체에 융화되어 정동사가 레마를 나타낼 때 후미 양태불변화사는 문말에 등장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그 양태의 의미를 제시할 수 있다. 중역에서 테마-레마성분과 관련하여 대조적 강세가 있는 대명사와 강세있는 명사구가 양태 불변화사의 중간에서 언어 행위¹²⁾를 명령문, 감탄

12) 언어행위를 기술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의미론과 언어행위론을 적용할 수 있다. 의미론에서 언어행위는 명제로 통합되어져서 이해된다. 그러나 이 입장에서는 언어수

문, 의문문이라는 화법을 수단으로 하여 상례적인 힘, 즉 발화의도력에 의해 수반되는 수용자의 행위와 발화효과행위를 가장 잘 표현한다..

3. 닫힌 결합장치

양태불변화사가 연속적으로 두 개 이상이 결합하는 것은 아주 다양하다. 이론적으로 171개의 양태불변화사 결합이 형성될 수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약 50개의 결합장치가 소개 될 것이다.¹³⁾

Distribution der Modalpartikel-Kombinationen

Aussagesatz	Entscheidungs	W-frage	Imperativ	Wunsch	W-exklama
-frage	-frage	-satz	-satz	-satz	-satz
				doch bloß	doch bloß
				doch nur	doch nur
denn auch	denn auch	denn auch			
denn wohl	denn wohl	denn wohl			
doch einfach				doch einfach	
eben einfach				eben einfach	
halt eben				halt eben	
halt einfach				halt einfach	
doch schon				doch schon	
doch mal				doch mal	
einfach mal					einfach mal
doch ruhig				doch ruhig	
ruhig mal				ruhig mal	

행 조작자(performativ Operator)를 적용시킬 수 없는 상황이 있거나, 행위의 특성이 문장 외부의 정보에 의해서 알려지는 경우에는 의미론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어행위에 대한 더 적합한 기술로 언어행위론의 입장을 갖는다.

13) 이 숫자에서 mir는 학자들에 따라 의견이 분분함으로 제외시켰다.

	auch JA		auch JA	
	denn eigentl	denn eigentl		
ja auch	denn etwa	denn bloß bloß JA	auch bloß	
ja eben	denn nicht	denn nur nur JA	auch nur	
ja einfach		denn schon nur mal	aber auch	
ja mal		auch schon nur ruhig		
ja schon		halt schon		
ja sowieso		halt mal		
ja wohl		eben mal		
doch sowieso				
wohl auch				
wohl sowieso				
denn doch				
doch wohl				
doch nicht etwa				

물론 denn은 비기대성 Unerwartet 자질이 의문문에서 나타나지만 결정의 문문의 일부에서는 연관성 Konnex 자질로서만 가능하다. 위에서 einfach mal 과 doch ruhig 그리고 ruhig mal의 결합은 평서문에서만 가능하며 발화행위에 수반되는 발화 의도력은 요청이다. 위의 표에서 한 문장에서 두 개의 양태불변화사가 연속적으로 이어져 나타나는 것 가운데 특징적 요소들만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양태불변화사 denn은 의문문에 나타나는 다른 양태불변화사와 주로 결합하게 된다. 서술문에서는 auch, doch, wohl 등과 결합 형식만이 나타나고 있다. 양태불변화사의 결합 denn schon은 다만 의문문에만 나타난다. schon은 수사적 의문의 지시사이기 때문에 denn schon은 수사적 의문으로 이해된다. denn schon의 결합은 흔히 나타나는 결합형태이다.¹⁴⁾

14) Vgl. Thurmair(1989:136).

(22) “Schlafen Sie auch ‘ohne’?” “Wer schläft denn schon ‘mit’?”

denn wohl의 결합 형식은 평서문과 결정의문문 그리고 보충 의문문에 나타난다. 서술문에서 양태불변화사 denn은 <관련성>자질만 나타낼 수 있고, 양태불변화사 wohl은 주장을 제한하고 있다.¹⁵⁾

(23) Gesiegt haben andere: Die bisher völlig unbekannte Italienerin(...) wurde überlegen Olympiasiegerin. Das ist denn wohl der vorläufig Höhepunkt der Misere des Deutschen Skiverbandes in dieser Disziplin.(SZ)

다음과 같이 부정이 내포된 강조의 서술문에서는 결합이 불가능하다

(24) Du spinnst wohl!

보충의문문에서 양태불변화사 denn wohl의 결합은 <관련성> 자질만 지니고 있다. <비기대성> 자질은 입증되지 않는다. 이러한 관련성 자질에 양태불변화사 wohl의 자질 <제한>이 작용한다. 보충의문문에서 화자는 양태불변화사 wohl을 통하여 의문 자체를 나타내거나 청자에게 추측을 기대하게 된다. 결정의문문에서 양태불변화사 denn wohl이 나타나며, 이 경우에도 양태불변화사 denn은 <관련성> 자질만 갖는다. 양태불변화사 denn과 etwa는 그 의미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비슷하게 <관련성>과 <비기대성>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결합은 비교적 쉽게 이루어진다. 양태불변화사 denn과 etwa를 통해 화자는 선행된 언어적 비언어적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동시에 이 행위들이 의문에 대한 동기가 기대되지 않았음을 뜻한다. denn과 etwa의 차이점은 경향에 있다. 양태불변화사 etwa는 <비소원성> 자질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자는 부정적 대답을 기대하

15) Vgl. Thurmair(1989:236).

거나 바라고 있다. 그래서 etwa가 있는 긍정의문의 경우 nein으로 대답하기를 기대하거나 표현된 사태의 타당성이 비 소원된 것으로 표시되기를 바란다. denn은 의문의 경우 기대하는 대답에 관하여 중립적이다. denn etwa의 결합은 etwa만 나타나는 경우와 거의 상응한다. 물론 양태불변화사 denn etwa가 있는 의문의 경우 필자가 보기에는 놀람이나 선행사건과 많은 관계 있으며 부정적 경향을 훨씬 덜 나타낸다.¹⁶⁾

(25) War der denn etwa ein Gotteslamm in Kriegszeiten?

(25') War der etwa ein Gotteslamm in Kriegszeiten?

양태불변화사 denn etwa 보다는 드물게 나타나는 denn vielleicht는 denn etwa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etwa와 vielleicht가 의문문에서 아주 비슷하게 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denn etwa는 변이가 비교적 더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¹⁷⁾ 양태불변화사 denn eigentlich의 결합은 비교적 흔하다. 이 결합은 보충의문문과 결정 의문문에서 나타나지만, 대부분 보충의문문에 나타난다.¹⁸⁾

16) Thurmair(1989:172)는 양태불변화사 auch와 etwa를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하고 있다: auch의문의 경우는 그의 자질 <기대성>로 인하여 기대적 대답을, etwa의문의 경우는 그의 자질 <비기대성>로 인하여 부정적 대답을 나타낸다.

17) 양태불변화사 etwa가 단독으로 쓰일 때도 양태불변화사 vielleicht보다 많은 변이형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아, 양태불변화사 denn보다 etwa와 vielleicht의 자질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8) Helbig(1990)는 양태불변화사 eigentlich를 서술문에 사용되는 두 종류(Er hat die Schachpartie eigentlich① verloren, obwohl er äußerlich noch gut da steht: Ich muß eigentlich② nach Berlin fahren.(das ist wichtiger) 와 보충의문문과 결정의문문에 사용되는 eigentlich(Warst du eigentlich ③ schon einmal in Italien?: Warum hat er eigentlich③ nichts gesagt?), 보충의문문에서만 사용되는 eigentlich(Was denkst du eigentlich④? im Inneren deines Wesens: nachdem du manches geäußert, was nur vordergründig erscheint?)를 구분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결합은 양태불변화사 denn의 사용 분포 문제와 공통적 분포에서 나타날 수 있겠다.

- (26) Sie verstehen eben nicht! Sie halten mich für eine kalte Ziege, die zwei liebende Herzen auseinandereißern will! Sagen Sie mal-in welchem Jahrhundert leben wir denn eigentlich?

위의 예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denn과 eigentlich는 대화상황에 특히 질문을 연결시키는 기능에서 서로 구분된다. denn은 발화가 선행발화나 선행행위를 직접 화제의 실마리로 삼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반면, 자질은 <관련성>을 나타내며, eigentlich는 테마의 이행, 즉 테마 교체 또는 관점의 교체를 나타내고 있다. 즉 전개되고 있는 화제의 포괄테마 중에 있는 하위 주제로 이행되는 것을 나타낸다.¹⁹⁾ 이는 자질 <이월성 ÜBERGANG으로 기술될 수 있다. denn eigentlich를 결합해 쓰는 경우는, denn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의 일부분에서만 eigentlich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양태불변화사 denn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부분집합과 결합 할 수 있다.²⁰⁾ 다음의 예는 테마교체를 나타낸다. 그 교체는 eigentlich를 사용함으로써 가능하다. 여기서 denn eigentlich결합은 불가능하다. denn bloß와 denn nur 이 두 결합은 보충의문문에서만 상당히 빈번하게 출현함으로써 denn의 의미에 bloß나 nur가 첨가되어 발화행위 그 자체가 질문의 의도를 강조한다.²¹⁾

- (27) Ich wollte seiner Hand ausweichen, aber er schlug gleich zweimal zu. "Was ist denn bloß mit dir?"

19) Hentschel/ Weydt(1983:279)은 양태불변화사 denn의문과 eigentlich의문의 구분점을 화제에 대한 외적 동기(externe Motivation)와 내적 동기(interne Motivation)로 설명하고 있다.

20) Thurmair(1989)는 denn의 7 종류의 분포를 전부 의문문에만 나타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양태불변화사 eigentlich와 결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이들의 공통적 분포에 한정된다.

21) Thurmair(1989)에 의하면 양태불변화사 bloß와 nur는 보충의문문에 사용되어서 질문의 절박성과 강조를 나타낸다. 따라서 양태불변화사 bloß와 nur의 이러한 자질 <강조>이 이 결합에 나타날 수 있다.

위의 예들에서 위치 상으로 중역에서 양태불변화사는 부정관사를 가지든가 또는 관사를 갖지 않는 '不定'의 명사구 뒤에 위치할 수 없다. 그러나 부정관사가 '총체적'인 것으로 해석되어질 때는 부정명사 뒤에서 닫힌 결합장치를 유도한다. 따라서 어순을 통제하는 원리는 定-不定의 원리라고 Hentschel(1986:212ff)은 보고 있다. 정관사를 가진 명사구와 양태불변화사의 어순관계를 보면 다음이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관사 명사구의 전후 어디에 위치해도 좋다.

- (28) a. Er hat wahrscheinlich/leider das Auto geklaut.
 b. Er hat das Auto wahrscheinlich/leider geklaut.

여기서의 정관사는 정관사의 속성에 따라 테마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의문문 함의성, 내지 명시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 (29) Was hat er geklaut?
 a. Er hat wahrscheinlich/leider das Auto geklaut.
 b. *Er hat das Auto wahrscheinlich/leider geklaut.
 (30) Was hat er mit dem Auto gemacht?
 a. *Er hat wahrscheinlich/leider das Auto geklaut.
 b. Er hat das Auto wahrscheinlich/leider geklaut.

의문문 심층 분석에 따라 (29)에서는 das Auto가 레마가 되고 (30)에서는 geklaut가 레마가 된다. 따라서 공히 양태불변화사는 레마 앞에 위치하게 된다. 그러므로 중역에서의 양태불변화사는 뒤따르는 레마에 대한 신호가 될 수 있거나 어떤 맥락 속에 내포되어 있더라도 의미상 레마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짐작케 한다.

Pasch(1989a:40)에 의하면 문서법은 모든 가능한 용법해석에서 나온 불변수 Invariante라고 정의하는데 문서법이 실제 불변수라면 또 다른 문법서에서부터 운용소를 유도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문유형의 자구적 의미에 대한 청자의 언어지식이 양태불변화사의 닫힌 결합형태에서는 모든 함축이 맥락의존적 추론 과정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기능적 측면에서는 결정의문문에서는 denn, etwa,

eigentlich등이 출현하지만 mal이 동시에 결합하는 장치는 시제부사로서만이 가능하다. 여러 개의 양태불변화사가 닫힌 결합장치를 이루는 것은 동일한 문서법에서 이루어 져야 하며 세 개 내지 4가지의 양태불변화사가 결합될 때는 의미론적으로 양립 가능해야 한다. denn schon, denn auch, auch schon이 동일한 문서법에서 수용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이 denn auch schon도 가능하다.

- (31) Nein gar nichts Schlimmes: Nur ein kleines Mädchen steht da mitten in der Fußgängerzone und plärrt hemmungslos seinen Schmerz und seinen Zorn in die Umwelt. Aber die Mammi ist ja dabei, und so braucht man sich nicht weiter darum zu kümmern. Was wird's denn auch schon groß sein? Vielleicht hat sich der blauäugige Blondengel an einem von den betonernen Blumenkübeln den Zeh angestoßen.(SZ)

마찬가지로 doch ruhig, doch mal, nur ruhig, nur mal의 결합이 가능한 것은 이러한 형태의 결합장치가 다음과 같은 양태불변화사의 결합 형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²²⁾

- (32) Komm doch ruhig mal vorbei!
 (33) Komm doch nur mal vorbei!
 (34) Komm doch nur ruhig mal vorbei!

위의 예문(34)에서 nur 대신에 bloß를 대치할 경우 닫힌 결합장치가 불가능하다. doch bloß는 가능하지만 4개의 양태불변화사가 결합할 때는 nur가 발화의도행위의 찬성 내지 인정의 요소가 bloß를 통해 약화되기 때문이다. doch bloß와 doch nur, doch mal의 결합이 W-의문문에서는 단일 형태로 등장할 수 있다. 결합장치에서 두 번째에 위치하는 양태불변화사는 지나가는 투로 도입되어진 테마로서 레마적 구조를 의식적으로 테마로 청자에게 제시한다. 정보전달이란 일반

22) Vgl. Thurmair(1989:284).

적으로 단계적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비 단계적인 급격한 전개는 청자를 이해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피하게 된다.

(35) Der Arbeiter: Herr Doktor, tun Sie doch nur nicht so. Wir beide:- Na ja, ich sage bloß wir beide...(Ma, 298)

(36) Und nun klagen Sie doch mal dagegen, daß ich Sie einen Verleumder genannt habe!(FK II,264)

그 외에 여러 개의 양태불변화사가 닫힌 결합장치를 이루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37) Es handelt sich offensichtlich um eine ernstzunehmende Panne. Sonst bräuchte sie ja wohl auch im vorliegenden Fall nicht beseitigt zu werden.

(38) Neffe: ...und dann haben sich die Eltern furchtbar aufgeregt, weil ich einfach ihr Auto genommen habe.

Tante: Na, das ist aber doch auch eine Frechheit!!

(39) Mein Gott, wie kann man nur an der Steckdose was reparieren ohne die Sicherung rauszudrehen! Du bist doch aber auch zu dumm!

(40) Die Versicherung zahlt 10% von dem Schaden. Das ist denn doch bloß Augenwischerei!

(41) Was ist das denn auch nur für eine Hochzeit, wo ein Vertrag vorgelesen wird anstelle eines Eheversprechens?!

(42) Mutter: Du bist mir ja ein Storrel! Wenn du schon mal in Omas Nähe bist, hättest du ja doch wohl mal kurz bei ihr vorbeischauen können! (Ma,305)

여러 개의 양태불변화사가 닫힌 결합장치로 되면서 예문에서 보여주듯이 서로

다른 요소들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닫힌 결합장치 내에서 구체적인 불변화사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이 제일 첫째 위치를 차지하고 최고의 전달가를 지닌 Frechheit와 zu dumm, Augenwischerei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레마적 요소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요소이다. 의문문과 감탄문에서 정동사가 문전역 첫째 자리에 위치하고 P₂가 있다면 이 양극 사이의 기타 문지 Satzglieder의 위치는 바로 정동사에 인접해서 주어-목적어 어순을 지켜야 하는 인칭대명사가 아니라면 양태불변화사 닫힌 결합장치는 비교적 자유스럽다. 닫힌 결합장치에서 선행문의 레마가 다음 문의 테마가 된다는 단순선상전개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정보전개에 해당되는 동일 문장 내에서 양태불변화사들의 결합이 해당된 표현의 핵kern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Du hast doch wohl nicht etwa das ganze Geld verspielt?

Ta

Tb M₀ M₁ M₂ M₃ Kern R₁ R₀

Tc

M:Modalpartikeln R:Rhema T:Thema^적 요소

지금까지 우리는 결합장치와 더불어 완전한 문장을 이루나, 언어적 문맥의 도움을 받아 레마를 나타내는 신호적 역할을 하는 것이 단순히 문장배열로서만 설명될 수 없으며, 항상 운율적 특성이 동시에 작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4. 결합내에서의 순서

가장 먼저 Engel(1971:91ff)의 뒤를 이어 Helbig/Kötz(1981:41f)는 동일한 문장 내에서 여러 가지의 양태불변화사 순서를 규정 지을 때 다음과 같이 a-b-c-d-e-f를 따른다.

a) denn, doch(unbetont), eigentlich, etwa, ja

b) aber, eben, halt, vielleicht, wohl

- c) doch(betont), schon
- d) auch, mal
- e) bloß, nur

그러면 denn-eigentlich 혹은 eigentlich-denn의 순서를 따를 것인지는 단순히 좌측에서 우측으로의 연속선상의 배열 중심으로 다음의 예문을 통해 나타낼 수 있는데, 이는 레마와 결속된 의미를 나타낸다. 다시 말해 레마는 텍스트상의 제조건에 제약이 많이 받기 때문에 배열이 어순에 있어서도 종속적인 결속된 배열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언제나 한 요소가 다른 요소를 보다 정확히 규정한다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단계적으로 보다 명백히 규정된다.²³⁾

ja-denn-doch-eben-wohl-einfach-sowieso-vielleicht-schon/auch-ruhig-mal

- (43) Das ist ja vielleicht auch eine Frechheit
- (44) Der wird das ja doch wohl nicht von mir erwarten.

위의 예문에 나타난 순서를 바꾸어 wohl ja auch로 나타난 문장은 양태 불변화사간의 의미결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 (45) *Der kann wohl ja auch nicht recht aus seiner Haut.

강제로 JA가 나타날 경우에는 강조의 의미로 요구문 형식에서 가능하여 청자에게 무조건 무엇을 하게 하거나 중단하게 강요하는데 사용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징벌이나 위협, 손해가 뒤따른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주 기능을 하는 JA가 왼쪽에 위치할 경우에는 주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bloß를 한정하기 때문에 다음의 예문에 나타난 것과 같이 의미 결속이

23) Vgl. Helbig/Kötz(1981:41).

이루어지지 않는다. (Helbig,1988:167)

mir-auch-nur-bloß-**JA**

(46) Mach mir auch JA immer deine Aufgaben ordentlich!

*Sperren Sie JA bloß immer den Tresor zu!

우리는 위의 예문들을 통해 공통적 인식인 ‘과제를 수행 해야한다’는 가정 하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청자의 이해나 설득을 기대하게 될 때, 화자는 청자가 충분한 공통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짐작을 하고 있다고 해도 이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므로 mir auch **JA**사용함으로써 이미 공통적인 인식 내용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이때 **JA**의 효과를 보다 잘 드러내기 위한 개인적 사회적 관계가 한정적 요소인 mir auch에 포함되어 있다. 순간적인 표현을 드러내어 선행요소와의 질적인 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하는가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형태적 배열 순서를 따라야 정확한 발화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Thurmair,1988:288)

1. (ja)-**denn**-nicht-doch-wohl-etwa-vielleicht-eigentlich-schon/auch-nur-bloß
2. ja-denn-aber-halt-**doch**-aber-eben-halt-wohl-(nicht)etwa-einfach/schon/auch-sowieso- nur-bloß-ruhig-mal
3. ja-doch-**eben**-halt-einfach/auch-mal
4. doch-**halt**-doch-eben-woho-schon-einfach/auch-ruhig-mal
5. ja-denn-halt/doch-**wohl**-(nicht)etwa-schon-einfach/auch-sowieso-mal
6. ja-doch-eben-halt-wohl-nur-auch-**einfach**-auch-nur-mal
7. ja-denn-doch-halt-wohl-auch-**schon**-auch
8. ja-denn-doch-aber-eben-halt-wohl-schon-einfach-**auch**-schon-einfach-nur-bloß-JA
9. ja-doch-wohl-**eh und sowieso**

10. mir- doch- **aber**-doch-auch-vielleicht
11. denn-doch(nicht)-wohl(nicht)-**etwa**
12. denn-**eigentlich**-(auch)-nur-bloß
13. denn-doch-eigentlich-auch/einfach-**nur**-einfach-bloß-JA-ruhig-mal
14. ja-doch-eben-halt-einfach-wohl-auch-nur-ruhig-**mal**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ja가 항상 첫째 위치를 차지하며 그 다음 위치에는 denn이 가능하다. 마지막에는 정중한 요청을 할 때의 mal이 차지하고 있다. sowieso와 schon은 그 이전의 요소를 한정할 때, ja, doch, halt, eben, wohl뒤에서만 항상 나타난다. 그러나 denn이 항상 첫째 위치를 차지할 때는 물론 자질이 <비기대적>이어야 한다. etwa도 앞선 요소의 비기대적인 기능이 첨가되고 있다. 이것은 양태불변화사의 기능이나 발화의도와 관련하여 규명되어 져야 될 것으로서 마지막 위치를 차지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mal의 위치는 항상 ruhig와 einfach와 더불어 상당히 많은 비언어적 문맥과 상황에 대한 지식을 추론하고 있는데 양태불변화사의 결합이 커질수록 이 상황적 지식 Situationswissen이 화자와 청자에게 빠르게 습득된다.

(47) Geh halt einfach mal hin! (Thurmair,1989:288, 참조)

위의 예문에서 명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einfach 내지 mal은 von mir(나에게서)라는 문맥에서 연유되어 mal에 가장 많은 양의 요청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과 같이 4개의 양태불변화사가 계속적으로 결합할 때는 둘째 위치를 차지하는 요소는 첫째 양태불변화사의 강화 내지 약화기능을 하고 있다.

(48) Wir können ja wohl schon auch von der Solidität dieser Firma ausgehen.

ja wohl schon auch의 결합형식을 통하여 평소에 이 회사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훨씬 오래 전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는데, wohl은 ja를 통해 비언어적인 혹은 언어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시 말해 강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schon은 auch를 강화시키고 있다. 의문을 표현하고자 할 때는 화자가 청자로부터 어떤 대답을 기대하게 되므로 단힌. 결합에서 etwa와 schon, nicht도 항상 둘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평서문에서는 표현된 사태와 관련하여 doch einfach와 eben einfach는 구어에서 자연스럽게 결합된 형태이다. 둘째와 마지막에 위치하는 양태불변화사가 상황지식을 가장 많이 함축적인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대화참여자에게 ja wohl과 schon auch의 역할과의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5. 맺음말

이상과 같이 양태불변화사의 결합형태를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 순서는 어떻게 실제 상황에서 어떤 기능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대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는 결합형태는 기본순서 및 정상적인 순차적 배열과 그 논항에 부속된다는 데 있다. 단힌 결합장치에서는 결합구성소의 일차적인 혹은 2차적인 기본순서가 주어지고 핵에 가장 가까이 위치하는 동사 인접적인 내부 논항과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양태불변화사가 있다면 순차적 배열로서 오른쪽에 위치한 논항이 핵과 더불어 청자로 하여금 실제로 타당한 대안 선택권을 부여한다. 그러나 4가지 이상의 결합장치가 이루어질 때는 둘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첫째 위치의 강화 내지 약화요소로 작용한다. 열린결합장치에서는 양태불변화사(M1)→ 문장(S1)→ 양태불변화사(M2)→ 문장(S2)의 관계가 성립하는데, M1은 화자가 아직 말을 하고 싶지 않고 잠시 생각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시점의 역할을 한다. 두 개의 담화 사이에 휴식기를 채워주는 양태불변화사 M2가 들어감으로서 의사소통 복원이 이루어진다. 이는 그 다음에 오는 문장을 위해 지시태두리로 작용하여 여기서 지시 보유관계(S1포함 S2)가 성립된다. M2는

화자가 교체될 때, 침묵이나 다른 화자의 방해로 인해 잠시 대화가 중단되더라도 다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마련해 준다.

참고 문헌

- 권영숙(1998): “시간지시를 내포한 담화문구조”, 「텍스트언어학」 5. 텍스트 언어학회.
- 김홍자(2000). “*doch*와 *denn*의 구어텍스트 형성에 있어서의 화자전략”, 「언어 과학연구 18」, 언어과학회.
- 김홍자(1999). 「양태불변화사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기성.김홍자(2000): “양태불변화사와 텍스트 맥락”, 「언어과학연구 17」, 언어과학회.
- Borst, D.(1985): Die affirmativen Modalpartikeln *doch*, *ja* und *schon*. Ihre Bedeutung, Funktion, Stellung und ihr Vorkommen. Tübingen: Niemeyer
- Brinkmann, H.: Die deutsche Sprache. Gestalt und Leistung. 2.Aufl. Düsseldorf 1971.
- Franck, D.(1980): Grammtik und Konversation. Stilistische Pragmatik des Dialogs und die Bedeutung deutscher Modalpartikeln. Königstein/Ts.: Athenäum.
- Helbig, G.(1990): Lexikon deutscher Modalwörter. Leipzig:Enzyklopädie.
- Helbig, G./Kötz, Werner(1981): Die Partikeln. Leipzig.Enzyklopädie.
- Hentschel, E.(1986): Funktion und Geschichte deutscher Partikeln. *Ja*, *doch*, *halt und eben*. Tübingen: Niemeyer.
- Hentschel, E./Weydt, H.(1983): Der pragmatische Mechanismus: *denn* und *eigentlich*. In: Weydt, H. ed.263-283.
- Krivosov, Alexej(1965): Die Wechselbeziehung Zwischen den modalen Partikeln und der Satzintonation im Deutschen. Zeitschrift für Phonetik 18. 501-521.
- Pasch, R.(1983): Überlegungen zum Begriff des Satzmodus. Linguistische

- Studien. ReiheA. Arbeitsbericht 193. 1-88.
- Thurmair, M.(1989): Modalpartikeln und ihre Kombinationen. Tübingen: Niemeyer.
- Zeljko U.(1997): Die deutschen Modalpartikeln aber, denn, doch und schon und ihre kroatischen Entscheidungen. Sprachwissenschaft, Bd.7. Marburg:Tectum
- Zemb, J.M.(1971): Les liaisons dangereuses. In:Sprache der Gegenwart 17. Fragen der strukturellen Syntax und der kontrastiven Grammatik. Düsseldorf:Schwann. 135-150.

Zusammenfassung

Modalpartikel-Kombinationen

Kim, Hong-Ja(Hongik Uni.)

Modalpartikel-Kombinationen wurden bisher in der Forschung kaum behandelt. Modalpartikeln stehen immer im Mittelfeld eines Satzes. Innerhalb des Mittelfeldes aber ist ihre Position variabel. Nur deshalb sind auch Modalpartikel-Kombinationen möglich, bei denen zwischen den beiden Partikeln ein oder mehrere Lexeme auftreten können.. Diese Art von Kombination soll hier 'offene Kombination' genannt werden im Gegensatz zu den 'geschlossenen Kombinationen' bei denen die eine Modalpartikel unmittelbar auf die andere folgt. Die Stellung der beiden Modalpartikeln bei einer offenen Kombination ist im Satz nicht beliebig, und deshalb ist auch das, was zwischen zwei Modalpartikeln steht, gewissen Beschränkungen unterworfen. Vor allem die Position der zweiten bzw. letzten Modalpartikel im Satz hängt von der Thema-Rhema-Gliederung ab. Die geschlossenen

Varianten der Modalpartikel-Kombinationen sind das ein Indiz für die Verfestigung. Es handelt sich eben nicht mehr nur um das zufällige Auftreten zweier partikeln im selben Satz, sondern im vielen Fällen um eine feste Einheit, deren Bedeutung allerdings immer noch aus der Bedeutung der Einzelbestandteile zusammengesetzt werden kann. Kombinationen von Modalpartikeln sind also als ein weiteres wichtiges Mittel zur Gestaltung eines Dialogs und damit zur Ausgestaltung des Kontakts der Gesprächspartner untereinander zu sehen.